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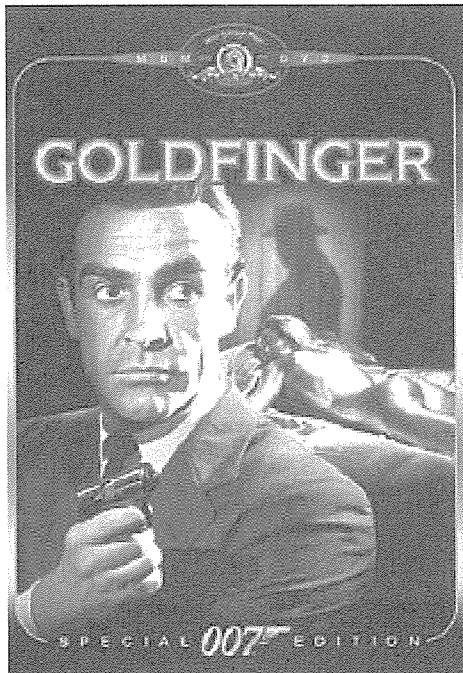
## 더티폼 아이디어의 선구자, 골드핑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화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매일 매일 우리는 영화와 접한다. 영화는 시대를 반영하고 또 영화가 시대를 앞서가기도 한다. 수많은 영화들이 우리 주위에 왔다가 사라져갔다. 그리고 많은 영화에 원자력이 등장하였다. 이번 호부터 원자력을 가지고 영화를 들여다보고 또 세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007 영화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스틸에 찬 음악과 함께 흐느적거리는 아름다운 여자들의 실루엣. 신형 총의 조준창 속으로 걸어가는 키 큰 사나이. 조준창이 그를 따라간다. 그리고 갑자기 그 사내가 이쪽을 돌아보며 총을 쏜다. 핏빛으로 물드는 화면... 전형적인 007 영화의 타이틀이다.

그리고 영국의 첩보부에서 국장 M에게서 출동 명령을 받고 비서실의 여성 마니페니에게 수작을 걸다가 떠나는 사내.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첩보원이다. 이때 그에게 대개 신형 무기가 제공된다. 그리고 목적지의 도시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내. 차를 대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나이 혹은 여인과 만나 암호를 확인한 후 악수를 한다. "본드, 제임스 본드" 그의 첫 인사이다.

007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될 때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지금까지 총 20편이 제작되었다. 물론 '카지노 로얄'과 '네버세이 네버 어게인'이라는 영화 2편이 더 있지만, 이들은 정통적인 007 영



화 족보에 끼워주지 않는다. 007 영화는 대개 악당들의 음모를 쳐부수는 제임스 본드의 활약과 신기한 무기와 멋진 차, 그리고 아름다운 본드 걸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2003년 개봉된 '어나더 데이'는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그 영화를 보지말자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고, 차인표가 그 영화 출연을 거절하여 또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007 시리즈 영화 중에서 5편이 핵무기 혹은 핵폭탄의 위협을 가하는 악당들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핵으로 가하는 악당들의



테러의 유형들이 이 영화에 대개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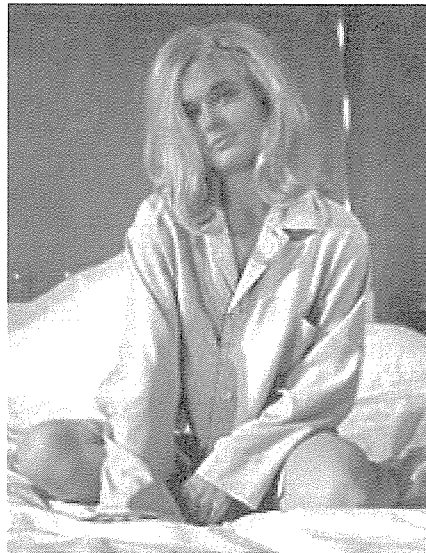
007 시리즈 제3탄 '골드핑거'는 1963년에 제작되었다. 골드핑거는 금에 집착하는 금마니아. 그의 금에 대한 병적인 취향은 여인을 죽일 때(물론 영화 속에서) 금가루를 나신에 바를 정도이다. 당시 나의 친구들은 영화 속의 그녀가 전신에 바른 금가루 때문에 피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금을 온몸에 바르고 죽었으니... 얼마나 호사스러운 죽음인가? 그 이미지는 아마 투탕카멘의 금 마스크와 관에서 얻은 것이리라.

골드핑거는 영국으로부터 금을 미국으로 밀수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롤스로이스의 바디를 금으로 만들어 비행기로 들어온다. 승용차 안에 금괴가 숨겨져 있는지만 확인하는 당국의 눈을 피하려는 지능적 수법. 그러나 악당 골드핑거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미국 연방 정부 금보관소인 포트 녹스(Fort Knox)를 공격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는 미국 포트 녹스에 있는 금을 다 훔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수송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영화 속의 아이디어는 기발하다. 골드핑거는 그 포트 녹스에 있는 금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을 터뜨려 그것을 방사화하려는 것. 중국으로부터 빼낸 원자폭탄을 폭발시켜 150억불 어치의 금괴를 58년 간 방사능으로 오염되게 하여 서방 세계 경제를 혼란시키고 자신의 금값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자폭탄을 일종의 더티 봄(dirty

bomb)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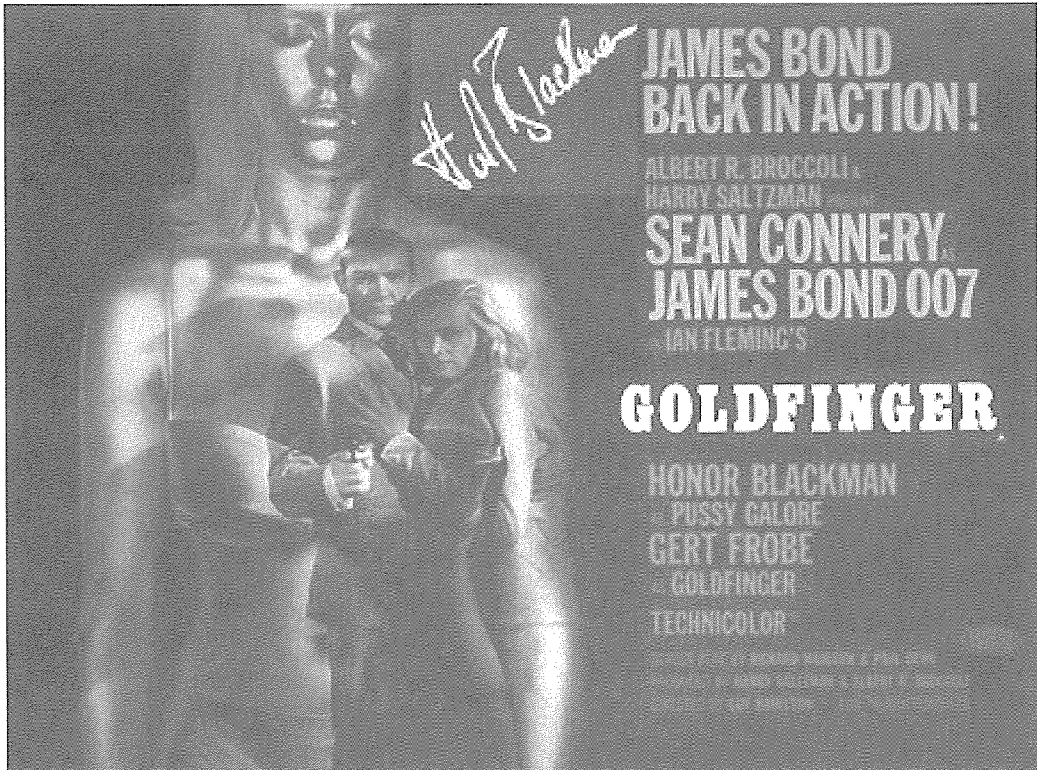
더티 봄(dirty bomb). 사실 이것은 원자폭탄과는 개념이 다르다. 다이ना마이트 등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주변에 둘러싸놓은 것이다. 만들기가 아주 쉽고 파괴력과 살상력은 거의 없지만 사회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보통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인데, 더티 봄은 이것들을 확실히 다 만족시킨다.



푸시역의 Honor Blackman

원자 배터리 등에는 고성능의 스트론튬90이 들어 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 다이나마이트 막대 하나에 장착한 소형 더티 봄부터 시작하여 배낭이나 소형차를 이용한 중형, 그리고 트럭을 이용한 대형 더티 봄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여하튼 골드핑거가 1963년에 원폭을 사용하여 금을 오염시키려고 하였으니 더티봄 아이디어는 그가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골드핑거는 현대판 마이더스(Mi-dus)왕이다. 신화 속의 마이더스는 금을 너무 좋아하여 손에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기를 원하였지만 골드핑거는 자신이 가진 금의 시세를 폭등시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런 면에서 그는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와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악당이였다. 신경 가스를 사용하는 악당들의 음모는 제임스 본드의 맹활약 끝에 분쇄되고 그는 그 공로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 전용기에 앉아 있다.



그러나 영화가 그냥 끝날 수는 없다. 승무원복을 입고 금권총을 들고 나타난 골드핑거. 그는 본드를 쿠바로 끌고 가려하고 비행기 속에서의 사투 끝에 발사된 총알로 깨진 창문으로 거구의 골드핑거는 빨려나간다. 그리고 비행기는 불시착하고 본드 걸인 푸시 갈로어와 사랑을 나누는 본드. 제임스 본드 역에 션 코넬리가 출연하였다.

본드 걸 푸시 갈로어(Pussy Galore) 역에 Honor Blackman이라는 여배우가 출연하였다. 푸시란 영화 속 이름도 007영화답고 여배우 본명도 영예(로운) 블랙맨인 것이 흥미로운 일이었다. 영화 속 골드핑거의 full name은 Auric Goldfinger. Au가 금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이므로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금인 셈이다.

이광수의 소설 '사랑'에 안빈과 석순옥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의하면 사랑을 하면 혈액 속에 아우라몬(auramon)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는 육체적인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이광수는 육체적인 사랑을 물질의 왕인 금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아우라몬을 줄이고 정신적인 사랑의 특성인 아모르젠(amorgen)을 늘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58년 이후에는 과연 원폭으로 오염된 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왜 58년이라는 시한이 나왔는지 전공자들이 한번 계산해보는 건 어떨까. ☹